

새로 나온 詩集

해바라기의 碑銘

함형수 지음

194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음」이 당선, 등단한 시인이 최근까지 쓴 작품 중 35편을 모았다. 대표작인 「해바라기의 碑銘」을 비롯, 「少年行」 「기러기」 「마음의 촛불」 등 주로 짧은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짧지만, 주로 복합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그 의미가 넓게 확산된다.

문학과학평사 / A5 변형 / 66면 / 2000원

불의 椅子

李秋林 지음

62년 長詩集 「歷史에의 敵意」를 펴낸 이래, 주로 장시나 연작시를 발표해왔던 시인의 연작시집. 지상의 모든 사물들, 특히 초콜렛이나 쇠기둥이나 로보트까지도 물과 불의 상상력 속에서 독특하게 대화를 이루고 있다. 서정적 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풍자적 기법으로 씌어진 시들이 많아 시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

明文堂 / A5신 / 212면 / 3000원

별밭을 우러르며

김지하 지음

「항토」 「타는 목마름으로」 「애린」 「이 가문 날에 비구름」 등의 시집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와 싸우는 지식인의 의지를 침예하게 보여주었던 시인의 신작 서정시집. 초기시에서 보여주었던 직선적인 날카로움보다는 모든 생명체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물까지 포용하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집의 끝부분에는 「애린」 이후의 시인의 시세계를 설명한 평론가 성민엽의 해설이 실려 있다.

동광출판사 / A5 변형 / 120면 / 2000원

나그네 젖은 눈

高遠 지음

시집 「이슬의 향변」 「눈으로 약속한 시간」에 「속삭이는 불의 꽃」 「물너울」 등을 펴냈으며, 현재 미국에서 시작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의 시선집. 그가 냈던 시집에서 몇편씩을 고르고, 최근의 신작시 중 16편을 골라 함께 묶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서인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모국어에 대한 사랑을 신선한 기법으로 표출하고 있다.

혜원출판사 / A5신 / 264면 / 3000원

詩가 이 지상에 남아

李相範 지음

63년 「시조문학」지를 통해 등단한 이후 시조만을 발표해왔던 시인이 초기시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한데 묶었다. 총 111편을 가려 제작시기의 역순으로 배열함으로써 근 30년에 이르는 그의 詩歷을 쉽게 헤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작인 「詩가 이 지상에 남아」 등의 시들은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 그의 시대정신과 시조라는 전통적 시형식의 조화를 엿보게 한다.

청학 / A5신 / 206면 / 2500원

세상사람들의 꿈

‘시힘’ 동인

“힘은 시를 쓰게 하고, 시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낸다”는 기치 아래 모인 동인의 네번째 시모음. 고운기 · 고희열 · 김경미 · 김백겸 · 박철 · 안도현 · 양예경 · 최영철 · 황학주 등 동인들의 시와 김영춘 · 나희덕 · 성선경 등 신인들의 시, 그리고 ‘시힘’ 동인의 시세계를 진단한 양예경 · 정순진의 평론이 함께 실려 있다.

黃土 / A5 변형 / 154면 / 2000원

걸어서 하늘까지

朴海水 지음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를 발표해왔던 시인의 신작시집.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절규하는 목소리로 삶의 고뇌와 애환을 토로하고 있다. 그의 상상력의 세계에는 부조리한 삶에서 정의로운 삶으로, 타락한 세계에서 깨끗한 세계로, 분열된 자아에서 일치된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인간적 소망이 담겨 있다.

文學世界社 / A5 변형 / 120면 / 2000원

달빛 한짐 바람 한짐

김상현 지음

대전문화방송의 방송칼럼을 맡고 있는 시인의 처녀시집. 그의 시들은 대체로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향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와 현실의식 또는 문명비판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어린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시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게 한다. 시인 나태주의 발문을 함께 실었다.

삼영 / A5신 / 144면 / 2000원

무진 일기

정인섭 지음

「나를 깨우는 우리들 사랑」 「어둔 밤」 등 두권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세번째 시집. 해 · 달 · 구름 · 하늘 · 바다 · 밤 등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자연과, 꿈 · 사랑 · 죽음 · 영혼 등 인간세계에서 쉽게 펼쳐지는 현상들을 짧은 리듬으로 노래하고 있다.

文學과知性社 / A5 변형 / 108면 / 2000원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갖고 있다

송찬호 지음

「우리시대의 문학」 제6집에 시를 발표하여 등단한 시인의 처녀시집. 우리 시대의 현실이 시인의 뛰어난 상상력을 통해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죽음을 노래한 것이 많은데,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시선에 의해 재창조된 ‘고통스런 세계에 대한 해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民音社 / A5 변형 / 86면 / 2000원

찢레야 찢레야

金永辰 지음

전통적 서정시만을 발표해온 시인의 세번째 시집. 시인이 기존에 다루었던 너와 나 둘만의 사랑을 승화시킨 공동체적 사랑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간결한 리듬으로 이뤄져 있어, 긴장감을 더욱 깊게 느끼도록 한다. 특히 「꽃밭 마을의 정소리」 연작은 역사 · 태풍 · 민족 · 조상 · 깃발 · 용광로 · 불꽃놀이 등의 시어들이 오늘의 상황과 맞물려 시적 상징의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正東出版社 / A5 변형 / 98면 / 2000원

녹색의 양탄자를 이 대지 위에

이종림 지음

현재 서울 경원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시인의 신작시집. 그가 아직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아서인지, 그의 시편에 담겨 있는 언어들만 다분히 직정적이며 순박한 서정성의 표출에 머물러 있지만, 때문지 않은 서정성과 미의식이 오히려 신선함을 풍긴다. 沈相運 시인은 해설을 통해, 그의 시는 “뜻뜻하고 싱그러운 오월의 들풀과 같으며, 어떤 저항감이나 어려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약업신문사 / A5 변형 / 126면 / 2000원

멀리서 온 바다

慶賢秀 지음

우리 사회에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착하여 시로 승화시켰다. 아울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들을 적절한 리듬과 상징적 기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묘사하여 시적 명징성이 돋보이지만, 한 사물 · 사건이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를 시의 한 특성인 ‘뚝뚝침’의 기법으로 되살리고 있다.

오상 / A5 변형 / 154면 / 2000원

서산 가는 길

申賢秀 지음

충남 대천고교 교사인 시인의 처녀시집. 바르게 살기 위하여 부단히 싸우는 시인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시들은 고난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자신과 싸우며, 옥죄어오는 부당한 현실과 싸운다. 특히 「아버지」 연작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전의 삶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험난한 골짜기를 날날이 보여주고 있다.

湖西文化社 / A5 변형 / 164면 / 2000원

꿈에도 별은 찬밥처럼

이창기 지음

84년 계간 「문예중앙」에 「꿈에도 별은 찬밥처럼」 등이 당선, 등단한 시인의 처녀시집. 그는 이 시집에서 도시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메마름을, 그리고 그 메마름이 죽음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메마름에 대한 충격적이면서도 처절한 인식은 날카로운 ‘비뚤’과 의미깊은 반전을 통해 진정한 삶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진다.

文學과知性社 / A5 변형 / 114면 / 2000원

물 위를 걷는 자 물 밑을 걷는 자

주창윤 지음

86년 계간 「세계의 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처녀시집. 강 · 바다 · 산 등의 자연물들을 소재로 한 그의 시들은 대개 고요하고 차분한 어조로 현실을 시적으로 형상화해내고 있다. 문학평론가 남진우는 해설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시인의 언어는 지극히 섬세해서 거의 근육적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民音社 / A5 변형 / 84면 / 2000원